

북한의 '실화소설' 장르 특성 변모 양상 연구

- 『조선문학』의 평문과 북한문학이론서들을 중심으로 -

권 세 영*

차 례

- | | |
|-----------------------------|-----------------------------|
| I. 서론 | IV. 실화소설 장르의 활성화와 장르 성격의 변화 |
| II. 오체르크의 도입과 도입시기의 북문예의 경향 | V. 결론 |
| III. 오체르크 도입 초기의 장르의 개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북의 '실화소설' 장르의 성립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장르 도입의 정황과 장르의 성격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선문학』의 평문들과 이후의 북문예서적과 사전류에서 제시된 장르에 대한 개념들을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북의 실화소설이란 장르의 기초가 된 '오체르크'는 리효운의 평문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해방후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도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전 시점인 해방기에 발간된 『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에도 유사한 장르가 발간되었으며 1953년 이후의 『조선문학』

*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의 서사장르의 발표 양상 분석에 따르면 『실화소설』이 오체르크의 직도 입이라기 보다는 이전 1953년 이전 실제 사건, 인물 등을 실제 일화들을 소재로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바탕을 두고 문예활동의 체계화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이후에는 북한의 민족중심의 자주적인 문예이론 정립을 꾀하며 ‘오체르크’라는 장르는 쇠퇴하며 ‘실화’라는 장르가 대두되었고 ‘실화’, ‘실화문학’, ‘실화소설’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후 실화소설은 주체문예이론의 영향에 따라 인민들의 교양을 목적으로 실제 사건을 소재한 소설이란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현실의 실제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다는 점은 유지되었으나, 레포트타주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시기성’과 ‘평론적’ 성격에 대한 강조는 사라졌다는 점이다. 즉, 북의 실화소설은 북문예 초기의 실화 장르와도 다르며 러시아 사회주의 문예이론에 바탕을 둔 오체르크와도 비교하여도 성격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 오체르크, 실화문학, 실화소설, 실화, 북한문학

I. 서론

장르연구는 폴 헤르다니가 언급한바 대로 문학 연구의 본질이며 기초이며 ‘유사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작품들을 분류하는 작업이다.¹⁾ 남한과 북한은 오랜 분단 상황으로 인해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작품 내적으로 사상적, 주제적, 형상화 방식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장르에 있어서도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남북한 통합문학사를 준비한다면, 일방적으로 한 진영의 장르를

1) 폴 헤르다니, 『장르론』, 문장, 1983, p.4 참조.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 아닌 남북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장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르는 해당 장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명확히 장르에 소속될 수 없는 유형의 작품을 검토하는 것에도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북한 문학의 장르 고찰은 북한 문학 연구 차원에서 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문학 검토와 이해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북한문학 연구는 1988년 해금조치 이후 월북 문인 연구부터 본격화된 이래로 북한의 문학사 서술방식, 주체문예이론, 작품론, 작가론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방법론 논의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북한문학 연구의 주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문학과 문예이론이 지닌 특수성과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학이 지닌 특색 있는 장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은 모두 소설, 시, 희곡을 주요 장르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남측에서는 없거나 혹은 활성화 되지 않은 장르 또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남측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 장르로는 실화소설, 정론, 벽시가 대표적이다.

그중 실화소설은 북에서 유사한 성격의 글이 북에서 해방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작품 발표²⁾가 이뤄지고 있는 장르이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발간된 북한 문학이론서에서는 ‘실화소설’을 ‘실재한 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소설의 한 형태이다.’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장르를 중국에서는 보고문학이라 칭한

2) 한철순, <우리 비서아바이>, 『조선문학』 12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11. 66~73쪽 <우리 비서아바이>는 작은 농촌의 리당비서 심일섭을 기와 생산과 농업 생산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낼 뿐아니라 주민들과의 화합을 추구하는 인물로 영웅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심일섭은 이러한 공로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조선문학』에서는 2011년도에도 장르 도입 초기보다 편수가 줄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실화문학 장르가 발표되고 있다.

3) 리현순, 『문학형태론』, 문학예술출판사, 2007, 83쪽.

다. 이외에도 유사한 명칭으로는 기록문학과 르포르타주가 있다. 이렇듯 다양한 유사 장르명은 실화소설이 지닌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굳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말처럼 장르란 기계적으로 도입되기보단, 기본 개념 수용 이후 지역내 사상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타 장르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변화한다. 그리고 작가, 비평가들에 의해 재개념화 과정을 거쳐 정립되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장르를 고찰해야한다.

북한의 실화소설과 북한의 문학 장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영미와 오창은의 연구가 있다. 이영미는 북한에서 오체르크에서 실화문학으로 변모하는 과정과 오체르크 1950-60년대 오체르크 작품들의 내용과 경향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체르크가 지닌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⁴⁾ 그리고 엄밀히 말해 실화문학에 관한 개별적 연구라고는 할 순 없으나, 오창은은 북한문학의 장르 구분과 분류체계를 도서분류표와 북한문예이론서 검토를 통해 북한문학의 장르 체계를 제시하였다.⁵⁾ 북한 문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 특성상 당의 정책이 문예활동의 기본 지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문예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 중앙의 문예 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⁶⁾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문예정책에 관한 연구로써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실화소설이 북한에서 정립되어가는 과정과 개념변화를 관련 당 문예관련 정책과 관련 평문 검토와 함께 『조선문학』⁷⁾지에 실화소설이 발표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파악

4) 이영미, 「북한의 문학 장르 오체르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5) 오창은 「북한문학의 종류와 형태, 갈래에 관한 고찰」, 『어문논집』 42집, 325~344쪽.

6) 공산당 지배하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문예이론은 원칙적으로 맑스주의 노선에 의한 것만이 존재한다. 김용직, 『북한문학사』, 일지사, 2008, 13쪽.

7) 『조선문학』은 1946년 3월 25일 조직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의해 간행된 『문

하고자 하였다.

II. 오체르크의 도입과 도입시기의 북문예의 경향

실화소설은 북에서 개념이 정립되기에 앞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문예 이론의 영향을 받아 오체르크의 영향을 받았다. 장르에 대한 소개는 1952년 12월 30일 발행된 『문학예술』 제5권 제12호에 리효운이 「문학장르 오체르크에 관하여-창작 방법을 중심으로」라는 평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루어졌다.⁸⁾ 하지만 이 장르는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인 1953년 11월에 간행된 『조선문학』에서 처음으로 천정송의 <가교공사장>⁹⁾이란 제목의 오체르크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오체르크가 발표되기 전 북한 문예 정책과 유사한 장르들을 살펴봄으로써 오체르크 장르의 도입 배경과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초기 문예의 방향성은 표면적으로는 김일성을 주축으로 한 당의 영도에 따른다고는 하나, 아직 당의 구체적인 문예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46년 3월 한철야, 이기영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북조선예술총동맹'의 문예노선에 따라 정해졌다.¹⁰⁾

이들의 문예노선은 1946년 7월 25일 발간된 『문화전선』 창간호에 북조선예술총동맹 상임집행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文化戰線發刊에 際하여>와 <綱領>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화전선』 후신으로 이전 발간된 『조선문학』, 『문학예술』의 전통을 잇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지이다. 1953년 10월 『조선문학』으로 재창간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

8) 『문학예술』 12월호, 문예총출판사, 1952, 126~141쪽에 실린 리효운의 평문에 관한 분석은 이영미, 『북한 문학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2006, 142쪽 참조하였다.

9) 『조선문학』, 11월호, 문예총출판사, 1953년.

10) 김운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6-27쪽 참조.

朝鮮人民은 偉大한領導者 金日成將軍의周圍에 튼튼히뭉치어 새로운 政治 새로운經濟 새로운文化建設의 歷史的 課業을勝利的으로 實施하고 있으며 (중략) 『文化戰線』이 우리北朝鮮藝術總同盟의 中央機關紙로써 發刊됨에際하여 우리들은 이 『文化戰線』이 朝鮮人民속에깊이들어가 文學者, 藝術家들의 創造의열매가 人民의것이 됨으로 眞實로人民에게 服務하는 『文化戰線』이 될것을 自期하며 또한 이것을爲 해야 全力을 다하고자 한다.』¹¹⁾

그 발간과 관련한 북조선예술총연맹의 입장과 강령은 북한문예가 당의 정치적 과업을 따르며 실천적 행위로써의 창작활동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朝鮮人民속에깊이들어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창작에 있어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체험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곧 당의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후인 1947년 3월 28일 김일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 중앙상무위원회가 발표한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에는 구체적인 창작방법론이 제시된다. 제시된 방침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장 체험을 통해 창작이 이뤄져 한다’¹²⁾는 것으로 『문화전선』에서 제시된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한 문학적 실천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북한에 오체르크란 장르가 리효운의 평론에 의해 소개되기 전 북한에서 발간된 『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에는 유사한 내용을 지닌 장르가 발표되었다. 1947년 4월 20일에 발행된 『문화전선』 제4호(이기영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는 ‘현지보고’라는 항목 아래 김사량이 작성한 <動員作家의 手帖>와 송영의 <生産과 文學>이 있으며, 1947년 9월 15일 간행된 『조선문학』 창간호(이기영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는 남궁만의 <現地動員 作家手記 - 製絲工場記>이다. 그리고 1948년 10월 15일 『문학예술』 제2

11) 『文化戰線』 창간호, 북조선예술총동맹, 1946.7.25.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문학령도사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68~169쪽 참조

호(정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박세영이 작성한 <현지보고 레뽀르파주 - 都工興南日記>가 있다.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현지보고, 수기류가 발표¹³⁾되었다.

1950년 6.25 발발한 이후에는 『조선문학』지에 김사랑, 천청송 등에 의해 종군기가 발표되었으며. 드물지만, 당의 방침을 따르며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들에 관한 수필 또한 발표되었다. 1952년 전쟁기간에 리효운에 의해 소개된 오체르크가 본격적으로 1953년 『조선문학』지에 발표된 계기는 북한 문단 내부 사정을 확연히 드러낸 1953년 8월 개최된 제1차 전국 작가 예술가대회 이후 발표된 작가동맹회 결정서¹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953년에 치러진 제1차 전국 작가 예술가대회는 여러모로 북한문학사의 이해에 있어 주목을 요한다. 김윤식은 이 대회를 통해 '입화'를 비롯한 남로당파의 축출과 더불어 북의 문예 활동의 방향성이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구성요소로 갖춘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확정되었음을 강조한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장르가 요구되었다. 즉,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구성요소로 갖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적 구현은 오체르크에서 혁명적 과업 달성을 위해 분투하는 영웅적인 인물의 형상화로서 실천된다. 더불어 전쟁 이후 정치권은 당과간 갈등과 해소와 더불어 전후복구가 급선무였기에 각 분야에서 전후복구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여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건 역군을 다룬 인물오체르크가 장르가 소개된 초기에 『조선문학』에 빈번히 게재되었다.

이러한 해방기와 전후 당의 정책과 문단 내부 상황과 밀접히 관련지어 북한에서 오체르크란 장르가 도입을 이해 할 수 있다. 즉, 오체르크란 장르의 도입은 당의 정책에 문예활동이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살필 수

13) 언급된 현지보고 외에 윤두헌 <바다로 가자>, 정진의 <勝利>, 성을 <製銅所記>가 있다.

14) 『조선문학』 창간호, 문예총출판사, 1953.10.

15)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세미, 1996, 56~57쪽 참조.

있게 해주며 기존의 선전문학적 글들에 대한 이론적 체계 도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오체르크 도입 초기의 장르의 개념

오체르크의 장르의 도입 초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리효운이 처음으로 오체르크란 장르를 소개한 1952년 12월호 『문학예술』지에 <문학 장르 오체르크에 관하여-창작 방법을 중심으로>와 오체르크가 활성화 되던 시기인 1958년도 번역 발간된 『문예 소사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리효운이 평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소비에트연방에서의 오체르크 장르의 유래와 주요 작품과 작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장르적 특성, 유형, 창작 방법을 아울러 다루고 있으며, 북한 문학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오체르크 장르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창작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혁명 시기와 전후 시기에 오체르크 장르가 시대적 필요와 인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널리 전개된 장르로 소개하며 오체르크란 장르가 지닌 목적문학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문학적 특성은 ‘쏘베트 시대의 주인공들의 초상을 그리며 그들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오체르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들을 따르는 의욕을 고무하며 쏘베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에 대한 신념을 굳게하며 그들의 공산주의적 창조력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¹⁶⁾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체르크 장르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전쟁 문학에서도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이 문

16) 위의 평문, 133쪽.

학 장르의 요소는 「수첩」, 「보도」, 「수필」, 「기행문」, 「실기」 등에서 장성되고 있으며 또 좋은 오-체르크 작품도 낳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리론으로 무장된 기초 위에 정확한 과학적 의식 밑에 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¹⁷⁾

이처럼 오체르크라는 장르 도입은 기존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문학 양식이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양상으로 이뤄지던 실제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장르의 글들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이론과의 접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문학』에서 1950년대 오체르크 장르가 활발히 게재 되던 시기에 수필, 기행문, 현지보고 등과 같은 장르의 글들은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오체르크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리효운은 고리끼와 같은 러시아 문인의 언급을 인용하며 오체르크 특성을 3가지로 언급한다. 실제인물과 사실을 다룬다는 점과, 구성이 소설과 유사하다는 점, 자기의 입장과 견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시평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평문에 인용된 고리끼의 말인 ‘오-체르크는 어데선가 연구와 소설의 중간에 설 것이다’¹⁸⁾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평문에는 또한 오체르크의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기행, 초상, 시평, 전쟁 오체르크이다. 각 유형은 기존의 수필류나 기행문, 수기, 평론, 중군기와 대응된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최초의 오체르크로 1946년에 한설야가 발표한 <인간 김일성>, <영웅 김일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1958년 북한에서 발간된 『문예 소사전』을 통해 오체르크의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다.

오체르크Очерк 서사적 문학의 한 형태. 오체르크가 서사적 문학의

17) 위의 평문, 128쪽.

18) 위의 평문, 129쪽.

다른 형태들(장편 소설, 중편 소설, 단편 소설)과 다른 점은 오체르크에서는 실제적 인물들이 참가하는, 실생활에서 일어 난 사건들이 정확히 묘사되는 반면에 레컨데 단편 소설에서는 작가는 일련의 생활적 사실들을 연구하여 그 중에서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허구와 창조적 상상에 의해서, 일반화된 화폭 즉 현실에서는 전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나 또는 작가가 묘사한 그대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묘사한다는 데 있다.

오체르끼스트 즉 오체르크 작가는 모든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적 사실들을 묘사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생활에서 선택하며 사건 및 인간의 품행에서 그의 특징적인 특징들만을 즉 작자의 사상, 생활에 대한 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오체르크 작가는 그것들을 변경하며 다소라도 현저한, 허구의 요소들에 의거할 권리가 없다.

예술적 오체르크는 쏘베트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다. 즉 사회주의적 생활의 새로운 현상들을 기동성 있게, 재빨리 알려 주며, 쏘베트 인간의 애국적 행동의 모범들, 조국에 대한 그의 헌신적 사랑, 공산주의를 위한 영웅적 투쟁, 쏘베트 사회에서의 인간들 간의 새로운 관계 등을 보여준다. 웨.오웨츠킨, 베. 갈린, 엠. 사기난, 아. 폴로솜브 및 기타 쏘베트 작가들의 예술적 오체르크 작품들이 유명하다.¹⁹⁾

『문예 소사전』에서는 오체르크의 문학적 특성과 제약사항 그리고 주요 오체르크 작가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오체르크의 장르적 특징은 실재인물과 생활적 사실을 대상으로하여 기동성 있게 창작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회주의 사상하에 애국적인 인물상을 형상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약사항으로는 인물에 있어서나 사건에 있어 허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오체르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오체르크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이론에 철저히 부합되는 장르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 엘. 저모페예브/엔. 웬그로브, 『문예 소사전』, 역자 최철운, 조소출판사, 1958, p.121.

앞서의 리효운의 평문과 『문예 소사전』에 제시된 개념을 통해 북한에서 초기 통용된 오체르크가 최근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여 영웅적인 인물을 형상화 함으로써 민중들의 사회주의 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도입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문예이론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기법의 적용과 더불어 다양한 산문 장르 창작 활동의 문예론적 체계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르 도입 초기 이러한 러시아 문예 장르의 특성 충실했던데 비해 민족적 특성이 강조되며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IV. 실화소설 장르의 활성화와 장르 성격의 변화

1953년 11월에 『조선문학』지에 천정송의 <가교공사장>²⁰⁾이란 제목의 오체르크가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에 1958년까지 오체르크 작품의 발표 수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1953년도부터 1961년까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오체르크와 여타 산문장르의 발표 추세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이전 북한의 문예 정책의 방향성이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에서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문예이론의 정립을 모색하던 시기으로써 오체르크에서 실화소설로 명칭이 변경된 시점이기에 북한의 실화소설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에서의 이러한 주체성의 강조는 1955년 12월 김일성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²¹⁾라는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 김일성은 모든 사상사업과 문

20) 천정송, <가교공사장>, 『조선문학』11월호, 문예출판사, 1953, 95~97쪽.

2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령도사2』, 문학예술조합출판사, 1994, 40~41쪽 참조.

학사업에 있어 조선혁명과 조선혁명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문건은 이후 정립된 주체사상에 대한 초기 문헌으로써 주목 받고 있다. 이 시기 이후 북한 문학계에서 사용되던 외래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뿌블리찌스찌가가 정론으로 바뀌며 레쁘르따쥬라는 용어 또한 점진적으로 쓰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체르크가 ‘실화문학’으로 명칭이 변경된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발표된 오체르크와 1953년도부터 1961년까지 서사장르의 발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 1953~1961년까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서사장르>

단위 : 편

년 도	오체르크	실 화	소 설	수 필	비 고
1953	1	0	5	5	
1954	6	0	22	14	뿌블리찌스찌가 1편
1955	14	0	30	0	뿌블리찌스찌가 2편 레쁘르따쥬 1편
1956	12	0	24	0	뿌블리찌스찌가란 용어가 사라지고 정론 이란 용어 사용, 현지보도 2편
1957	15	0	34	27	현지보도 3편
1958	36	0	44	34	목차 대항목에 오체르크 표기 시작, 현 지보도 4편
1959	21	0	40	19	현지보도 1편
1960	17	0	42	22	
1961	2	4	43	3	천리마 기사들-에 현지보도와 실화문학과 유사한 성격의 글 두 편, 리기영의 기행문이 실려있다.

1953-1961년은 <표-1>은 각 년도별 『조선문학』지에 발표된 서사장르 작품의 집계이다. 이 표를 통해 오체르크란 장르가 활성화 되는 시기와

여타 서사장르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다. 1953-1955년에는 오체르크가 발표된 1961년 4월 권정웅의 <풍년 60>을 마지막 오체르크란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²²⁾ 이러한 용어 변화의 이유는 1961년 3월 『조선문학』지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한설야의 보고인 「천리마 시대의문학 예술 창조를 위하여」²³⁾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방 후부터 당시까지의 북한 문예 활동을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해방 후 북한의 문학 예술을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된 혁명 위업 달성에 전적으로 복무하며 역사적인 매 단계에서 당 정책의 구현에 창조적 역량을 다 바치는 당적인 문학 예술’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천리마 시대’의 부합하는 문학 예술 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5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지던 맑스-레닌주의 미학 원칙에 충실한 문예활동을 강조하던 것에서 민족 문화 유산 계승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족 문화 유산 계승 문제에 대한 표명은 남북 대결 상황속에서 북한이 역사적 전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민족적차원에서 주체적인 문학 활동의 강화로 이해된다.

두 달 후인 1961년 5월호부터는 『조선문학』지 목차 대항목에 실화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실화라는 개념은 실화문학 혹은 실화소설보다 상위 개념으로 쓰인다. 이후 이전보다 발표되는 작품 수는 대체로 줄어드나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정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유사하지만 다른 장르와의 차별성이 강화된다. 유사한 장르로는 실기, 회상기, 종군기, 전투실기, 기행문, 현지보고가 있다. 이러한 장르들은 오체르크 도입 초기에 인물오체르크, 기행오체르크, 사건오체르크²⁴⁾ 등으로 통칭되기도 하

22) 예외적으로 『조선문학』 64년 1월호에서 윤석범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란 글에 장르명을 오체르크라 표기한 경우가 있다.

23) 『조선문학』, 61년 3월호, 13~29쪽.

24) 박종식·현종호·리상태에 의해 쓰여진 『문학개론』에서는 오체르크 작품을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기행 오체르크, 인물 오체르크, 사건 오체르크 등으로 구분

였으나 실화소설의 독자적인 예술성이 강조되며 장르가 다시금 분열된다. 즉, 실화소설 용어의 사용은 단순히 용어의 변화 뿐 아니라, 장르가 초기 도입된 오체르크의 기본 개념에서 북한에서 장르적 특성이 변개되어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선문학』지에 실화라고 표기된 작품의 발표의 양은 줄어드는 대신에 앞서 언급한 실기, 종군기, 기행문 등이 수필 혹은 실기라는 항목 하에 별도로 표기된다. 이는 또한 북한의 문예사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와 장르의 범주의 변화는 이전 수동적으로 러시아 문예이론의 수용 하던 단계에서 북한 자체의 문예 창작방식의 모색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오체르크에 대한 문학 이론적 개념 제시는 『조선문학』지에서 실제적으로 오체르크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시점인 1964년 박종식·현종호·리상태에 의해 쓰여진 『문학개론』에서 이뤄진다.

우리 문학의 력사는 오래 전부터 훌륭한 오체르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바 8 세기 혜초의 《왕 오천축국 전》을 비롯하여 박연암의 《열하일기》 가운데 있는 많은 작품들은 개개가 훌륭한 오체르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동 장유기》나 《표해가》도 역시 기행 가사이기는 하나 기행 오체르크의 전통도 쌓은 작품으로 보인다. 오체르크는 급격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와서 매우 발전한 서사적 종류의 한 형태이다. 우리 문학에서 이 형태는 해방 후 문학 특히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 문학에서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게 되었다. 오체르크는 우선 실제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형태의 문학으로서 다른 형태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허구성을 가지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중략) 오체르크는 시기성을 대단히 중요시 한다. 그것은 실제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사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중략) 우리 문학에서 《수기》, 《기행문》, 《보도 문학》, 《실기》, 《실화》 등은 이상에서 지적한 오체르크의 제 특징들이 구비되어 있음으로써 오체르크 형태에 소속시

한다.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 학우서방, 1964, 158~159쪽.

킬 수 있는 형식들이다.(중략) 오체르크 작품은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기행 오체르크, 인물 오체르크, 사진 오체르크 등으로 구분된다.²⁵⁾

이전 오체르크란 장르 개념을 러시아 장르에 국한하여 설명한 것에 비해 1964년 간행된 『문학개론』에서는 오체르크 기원을 헤초와 박지원의 작품을 열거하며 한국고전문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에서 도입된 장르의 기원을 국내 고전문학의 연관성하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 본격화하기 시작한 문학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을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는 북한에서 수용된 오체르크의 범주를 확인 할 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 《수기》, 《기행문》, 《보도 문학》, 《실기》, 《실화》 등은 이상에서 지적인 오체르크의 제 특징들이 구비되어 있음으로써 오체르크 형태에 소속시킬 수 있는 형식들이다.'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기 북한의 오체르크가 지녔던 넓은 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개론』에서는 실화문학을 한국고전문학과 관련지어 장르적 형식을 전통 문학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도입된 장르를 토착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착화는 실화문학이 지닌 독자적인 미학적 특성에 관한 평론적 성격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일룡의 「실화 문학에 대한 생각」이란 글에서는 실화를 '이것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촉진시키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적 현실 속에서 싹트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들을 무엇보다 먼저 발굴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전달해 주는 가장 전투적이며 민활한 문학의 가장 뚜렷한 한 장르이다.'라고 언급하며 이전보다 예술로써 미학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 오체르크가 평론적 성격과 기사적 성격을 포괄하였던데 반해서 실화문학의 개념을 문학의 한 범주로써 제시하고 있다.

실화문학에 대한 『조선문학』에서의 논의는 평문을 통해서도 이어졌

25) 위의 책, 158~159쪽.

다. 오체르크란 용어를 사용한 시점인 1958년에는 강능수가 『오체르크 문학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²⁶⁾라는 평론을 통해 『조선 기자』, 『문학 신문』에 실린 오체르크에 대한 평문들과 『조선 문학』, 『청년 문학』지에 실린 인물 오체르크들을 검토하며 오체르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 평문에서 사실 열거 위주의 기사식 오체르크가 아닌 영웅적 인물을 통한 감동을 주는 문학성을 갖춘 오체르크의 창작이 필요하다 역설한다. 60년대에는 최일룡의 『실화 문학에 대한 생각』²⁷⁾이란 글이 있다. 이 글에서도 앞서의 강능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사실 기록주의적인 작품이 아닌 예술성 형상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창작 방법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실화문학에 있어 예술성의 강조는 초기 오체르크란 장르의 기계적 도입에서 북한 문예이론에 따른 토착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로인해 이후에 문학사전과 문예이론서에서 오체르크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 사전류와 문예 이론서에 정의된 실화문학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확인된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실화문학이란 용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후에는 실화소설로 표기된다. 일부사전에서는 실화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용어 사용에 있어 이렇듯 혼란이 있기는 하나, 실화극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화문학이 대범주로 실화소설, 실화극이 하위범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에 발간된 『문학예술사전』²⁸⁾에서는 오체르크에 바탕을 두었다

26) 『조선문학』, 1958년 6월, 135~144쪽.

27) 위의 책, 170~173쪽.

28) ‘현실에서 벌어지는 의의있는 사 사건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묘사하는 서사문학의 한 형태. 실화문학은 다른 서사문학, 레컨대 소설문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허구가 적게 쓰인다. 흔히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인민들에게 제때에 알려줄 목적으로 창작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화문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인민들 속에서 꽃피고있는 아름다운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긍정적모범으로

는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실화문학을 소설문학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실화문학이 지닌 독자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오체르크의 영향으로 '인민들에게 제때에 알려줄 목적으로 창작된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시기성을 주요 특성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오체르크가 지닌 평론적 성격은 약화된다. 평론적 성격의 약화는 앞서 언급했던 오체르크와 실화문학 관련 평문들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문학적 예술성에 대해 강조하며 나타난 현상이라 이해된다. 2000년에 간행된 『조선대백과사전』²⁹⁾에서 또한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며 주체문예이론이 완성됨에 따라 주체문예이론에서 강조하는 '인간학'적 서사문학 장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화문학 장르의 주체문예이론적 설명은 그 즈음에 발표된 평문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 3월 『조선문학』에 게재된 명일식의 평론 『실화문학창작에서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에서는 '실화문학에서 인간학적요구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창조'³⁰⁾해야 함을 강조하며 주체문예이론의 인간학에 실화문학이 토대를 두고 있음을 제시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 문예이론서에 따르면 실화소설이란 장르는 이전과 달리 소설의 하위 형태로 규정된다. 2007년 리현순의 저작인 『문학형태론』³¹⁾에서는 묘사대상과 묘사수단에 따라 분류되는 소설의 형태들 중 하나로 실화소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화소설을 실재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이전 실화의 하위 장르로써 다루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묘사를 기본으로 하는 소설로써 제시하고 있다.

실화소설은 실재한 긍정적사실과 사건, 인물을 그려내는 측면에서는

교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568쪽.)

29)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0, 481~482쪽.

30) 『조선문학』, 2000년 3월, 32~37쪽.

31) 리현순, 『문학형태론』, 문학예술출판사, 2007, 82~87쪽.

실화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묘사를 기본으로 하는 소설의 형태적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하여 실화 소설은 실화와 구별된다.

현실적으로 실재한 사실과 사건, 인물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내는 것을 고유한 특성으로 하는 실화소설의 발생발전은 사실주의적 소설문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³²⁾

리현순의 『문학형태론』에서는 제시된 실화소설이 개념이 이전 제시된 개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체르크의 주요 특징이던 시기성에 대한 강조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작품 또한 실재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할 시에 실화소설이라 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의 실화소설 장르는 초기 오체르크와는 다른 유형의 장르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등장인물과 사건의 실재성은 여전히 강조되나 시기성 그리고 평론적 성격은 사라지거나 약화되었고 문학적 예술성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장르로 변모하게 되었다.

V. 결론

북한의 문예 장르에 대한 고찰은 대부분은 남한의 장르 범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의 단절로 인해 남측과 북한은 문학 장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시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와 고찰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장르인 실화소설이란 장르의 도입과 전개 그리고 최근에 문예이론서에 제시된 개념을 정

32) 위의 책, 83쪽.

리해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실화소설은 초기 오체르크에서 실화문학의 범주로 그리고 다시금 실화소설의 범주로 변화하였다. 변화된 점은 등장인물과 사건의 실재성, 최근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시기성, 평론적 성격으로 대변되는 오체르크의 특성에서 60년대 이후부터 평론적 성격보다 문학성이 강조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시기성에 대한 강조 또한 사라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실재성만이 유지되었고 소설로써의 편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르의 토착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문학창작 활동이 하향식 교시에 충실한 문예지도체 제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작품이 아닌 당 중앙 기관지인 『조선 문학』의 평론과 문예이론서들을 중심으로 장르의 개념과 범주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는 실화소설 장르의 다양한 유형과 변화과정의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작품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KYOBOTO
교보문고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선문학』, 문예총출판사, 1947~2000.

『문화예술』, 문예총출판사.

『文化戰線』, 북조선예술총동맹.

2. 사전류

『광명백과사전』6, 백과사전출판사, 2008.

『문학예술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2.

『백과전서』3, 백과사전출판사, 1983.

『조선대백과사전』15, 백과사전출판사, 2000.

3. 단행본

김용직, 『북한문학사』, 일지사, 2008, 13쪽.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6~27쪽.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세미, 1996, 56~57쪽.

리현순, 『문학형태론』, 문학예술출판사, 2007, 82~87쪽.

마로스 슬로먼 외, 『러시아 문학과 사상』, 박성규 옮김, 대명사, 1993.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 학우서방, 1964, 158~159쪽.

엘.찌포페예브·엔.웬그로브, 『문예 소사전』, 역자 최철운, 조소출판사,
1958, p.121.

장형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문학령도사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40~41쪽.

폴 헤르다니, 『장르론』, 문장, 1983, 4쪽.

4. 논문

이영미, 「북한의 문학 장르 오체르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2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409~434쪽.

오창은, 「북한문학의 종류와 형태, 갈래에 관한 고찰」, 『어문논집』 42집, 325~344쪽.



<Abstract>

North Korea's "Silwha Novel" genre
Characteristics Transformed Aspects Research
- 『Josun Literature』 Criticism and Literature Theory
Books of North Korean Focused

Kwon, Se-Young

In this paper, by studying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 genre novel "Silwha novel" of the north Korea, there is a purpose to understanding the changing aspect of the nature of the genre and situation of the genre introduced. For this reason, I consider to analyze the concept of a genre that has been presented by the book literary book and after the plain text of 『Josun literature』(1953).

"Ocherk" that was the basis of "Silwha novel" of the North Korea is introduced through Criticism of Lee Hyo-un. This genre was introduced as part of the acceptance of socialist literary theory in Liberation period. since 『Josun literature』(1953) that are configured in the genre , such as has been published in Liberation period is a state of previous 『Culture Front line』, 『Josun literature』(1948), also 『literature ar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urface, "Silwha novel" the systematization of literary activity is based on the socialist literary theory the theme of episode of fact, the actual events of 1953 previous, prior, such as a person rather than a direct introduction of "Ocherk" it can be seen that it is deployed as part of.

The 1961 and later, "Silwha novel", the rise, genre aims to official

literary theory voluntary ethnic center of North Korea, genre called “Silwha” that “true story”, the decline is “Silwha literature”, the term “Silwha novel” is used. Silwha novel, due to the influence of the main literary theory, the purpose of education of the people, established on the concept of this novel incidents of actual thereafter. biggest change in the course of such, it's the viewpoint that dealing with the reality, the person and the actual events was maintained, but that disappeared with personality of “Criticism” and “timeliness” be made a “reportage”. means that, “Silwha novel” in the north Korea also different “Ocherk” that was early “Silwha” genre of North Korea, “Ocherk” based on the socialist literary theory of Russia also be compared, It mean that the character of “Silwha novel” has changed to clear.

Key Words : Ocherk, true story literature, Silwha literature, Silwha, Silwha novel, North Korea literature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